



**핀란드, 2천만불 규모 석유화학원료 수입 추진**  
폴리스티렌, 폴리카보네이트, ABS 등

핀란드 Petrofinn사가 연간 2천만달러 규모의 석유화학원료 및 가공품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

이 회사는 주로 핀란드 등 북구지역 및 발틱지역에 판매망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과 장기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제조업체를 찾고 있다.

수입희망 제품별 규모는 폴리스티렌 1,500만달러, ABS 200만~300만달러, 폴리카보네이트 200만~300만달러 등이다.

세부적인 수입희망 품목과 수량은 다음과 같다.

- Polystyrene(PS)
- 형태 : Expandable (PS)(1천kg짜리 8각형 카톤박스에 포장)
- High-Impact PS
- General Purpose PS(25kg Sack에 포장, Granulate 형태)
- 연간수요 : 1천톤
- ABS : 연간 수요 1천톤 규모
- Polycarbonate(PC) : 연간 수요량 1천~2천톤

· Synthetic Rubber Sbr

■ 연락처

TEL : 358-9-622 0690 FAX : 358-9-622 3611



**캐나다, 폴리에틸렌 레진 급구**  
월 1컨테이너 규모 수입계획

캐나다 Pac-Rim Conventions사가 그로서리 백 제조에 필요한 한국산 폴리에틸렌 레진의 긴급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

그로서리 백(Grocery Bag)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HDPE, LDPE, LLDPE 레진으로서 월 1컨테이너 분량을 수입할 계획이다.

· 스펙

- HDPE for general film, shopping bags, thin film

Density : 0.950~0.956

Melt Index : 0.04~0.05

- LDPE For General use & thin film

Density : 0.920

Melt Index : 1~5

- LLDPE for use with HDPE & LDPE resins

■ 연락처

Pac-Rim Conventions

45370 Palge Place, Sardis, Bc, Canada  
V2R 3V3

Tel/Fax : 1-604-858-6130

**칠레, 재생폴리에틸렌 찾아**  
월 100톤 규모

칠레의 주요 플라스틱 레진 수입상 중 하나인 Tehmco사가 재생폴리에틸렌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

제품사양은 HDPE-Density 0.95g/cm<sup>3</sup>로써 색상은 아무 것이나 무방하다.

수입 희망량은 매월 약 100톤으로 용도는 플라스틱 튜브 제조용이다.

■ 연락처

Tehmco S.A.

Bellavista 377, Santiago, Chile

Tel : (56-2) 7379498

Fax : (56-2) 7371763, 6032844

**미국, 플라스틱백 제조업체 물색**  
연간 100만개 생산규모

Solutions사가 특수플라스틱백(연간 100만개 수요)을 생산할 수 있는 한국제조업체를 물색하고 있다.

· 사양

- 재질 : Aluminium metalized polyester(or mylar)

- Size : 6 × 8 inches

- Bottom : 1/2 inch bottom gusset with wire weld seam

- Top : 1/2-2 inches custom-tapered-lip with peel-off adhesive strip.

- Surface : printed colored art work

■ 연락처

Solutions Inc.

P.O.Box 21 Needham

MA 02192 USA

Tel : 781-431-8502

E-Mail : solutions@cybercom.net



### 오스트리아, 판지·포장지 수입 지속 증가 한국산 중계수출용 수입 계획

오스트리아 판지 및 포장지 수입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내수 및 수출용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제품의 진출확대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7년말 기준 약 30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오스트리아 제지산업은 전체 물량의 80%를 재수출을 통해 소화해 내고 있다.

96년에 비해 평균 수출가격이 16% 하락한 신문용지를 제외한 대부분 수출품목의 가격이 10~16% 인상돼 가격 마진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판지 및 포장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내수보다는 중계무역용에 대한 수요증가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제지업협회가 최근 발표한 동구권 시장의 성장가능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96년말 현재 동구권 국가들의 1인당 종이소비량은 50~60kg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U의 1인당 평균 소비량인 170kg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이 지역의 제지시장이 여타 경제권과 비교할 때 두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성장할만큼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고 평가하면서 이에 따른 오스트리아 중계 무역상들의 수입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구권 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동구권에 투자를 확장시켜온 오스트리아 제지업계는 97년말 현재 EU와 가입협상을 벌이고 있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등 4개국 제지업계의

40%를 장악하고 있다.

#### ■연락처

Spaco Handels GmbH  
Gottfried Kellergasse 2/26, A-1037 Wien,  
Austria

Tel : 43-1-717 21 10

Fax : 43-1-717 21 15

### 스웨덴, 입술연고용 플라스틱용기 수입희망 Cosmedica AB사, 10만개 수입 추진

스웨덴의 Cosmedica AB사가 입술연고용 플라스틱 용기 10만개의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품목 : Plastic containers for LIPBALM

규격 : 4~5g(5ml) 정도의 용기

#### ■연락처

Cosmedica AB  
Box 1018 251 10 Helsingborg, Sweden

Tel : 46-42-140606

Fax : 46-42-187610

### 호주 관세청, 한국산 폴리스티렌 정상 수출가 재심 자국업체 요청 받아들여

호주 관세청은 자국업체인 Huntsman Chemical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발포성 폴리스티렌의 정상 수출가격을 재심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EPS의 정상 수출가격 산정요인이 최근 변했기 때문이라고 재심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번 재심 대상품목은 직경 0.35~1.7mm의 EPS로 재심은 지난달 25일부터 5월21일까지 85일간 진행된다.

한국산 EPS는 지난해 호주 반덤핑조치 연장 결정에 따라 2002년 11월까지 반덤핑조치가 연장됐으며 당시 정상수출가격도 확정돼 정상수출 가격과 통관 수출액의 차액만큼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시드니 한국무역관이 호주관세청을 접촉해 정상수출가격 재심 결정 배경을 확인했으나 작년에 결정된 정상수출가격이 현재 호주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무역관 견해로는 최근원화 평가절하로 인해 한국산 EPS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크게 제고됨에 따라 한국산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대응방안으로 정상수출가격 재심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돼 우리 업계의 소명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베네수엘라, 포장기계 수요급증**  
대부분 수입의존, 기계식 선호도 높아

베네수엘라는 기계류 생산의 불모지이므로 포장기계 또한 생산기술 및 시설이 낙후했으며 생산업체도 Serrolex C.A 및 Fabricantes Nacionales de Maquinarias Empaquetadoras, 단 2개사에 불과하다.

자국산 포장기계는 가격은 싼 편이나 성능이 떨어져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포장기계 시장은 연간 약 2300만 달러 규모이며 96년말 수입액이 1900만달러에 달해 국내 수요의 약 83%가량을 수입에 의존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7년 상반기까지의 수입액은 1300만달러에 달해 경기활성화와 더불어 포장업계의 수입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포장기계 수요자 및 수입업자는 전자식보다는 기계식 포장기계를 선호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시장은 A/S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복잡하고 예민한 전자식보다는 단순하고 고장률이 적은 기계식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제품은 미국제나 독일제에 비해 매우 가격이 비싸므로 대형회사 이외에는 이탈리아 제품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수입업자 의견으로는 분당 120~150개를 포장할 수 있는 포장기계라면 베네수엘라 시장에 무리없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전통적으로 베네수엘라는 기계류 수입을 이탈리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기계는 가격이 매우 비싸므로 최근 업체들이 수입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96년까지만 해도 독일, 이탈리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73%에 달했으나 97년에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42%로 줄어들고 브라질 및 기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보통 기계류 수입관세는 10%정도이나 포장기계는 5%이므로 국내생산 기계보다는 수입기계를 더 선호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수입업체는 일본 및 한국제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업체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 경우 베네수엘라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포장기계의 경우 수입관세 5%이며 관세산정 기준은 CIF원칙, 송장가격이다. 송장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현저히 낮을시 세관이 보유하고 있



는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관세와는 별도로 관세납부 후 가격(입찰가격+수입관세)의 16.5%에 해당하는 판매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외에 통관수수료와 제세로 수입가격의 1~2%를 납부해야 한다.

고가 포장기계 시장은 이탈리아산이 석권하고 있으며 주요 브랜드로는 Italtapack, Coster, Nimax, Apol 및 Etipack 등이 있다.

중·저가 포장기계시장은 미국제품 및 독일제품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미국브랜드는 3M, Butan, Resina, Hope 등이 있고 독일브랜드 Giropack이 경쟁을 이루고 있다.

### 베트남, 자본재 시장공략 기회 노후설비 교체수요 증가

베트남의 플라스틱산업은 90년 이후 연평균 27%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연간 생산량이 30만톤에 불과해 1인당 소비규모가 연간 2.8kg으로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의 25kg에 비해 1/10 수준에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베트남 플라스틱공사는 2005년까지 플라스틱 제품 소비가 1인당 22kg에 달해 현재 소비규모보다 약 8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 뿐만 아니라 몰드,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등 관련기계 수요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틸렌, 프로필렌 등 플라스틱원료는 제품 특성상 품질보다 가격이 구매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최근 우리제품은 원화의 평가절하로 가격경쟁력이 회복되어 베트남 시장공략이 일본, 중

국 등 경쟁국에 비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 몰드,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등 플라스틱 기계류의 경우 베트남의 기술이 낙후되어 국내생산이 미미,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동안 베트남 시장내에서 한국산 플라스틱 기계류는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나 가격경쟁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어 왔는데 최근의 원화평가절하로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되어 올해 대 베트남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농업의 육성과 더불어 농산물 가공산업 및 식품산업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 식품가공, 포장설비 신·증설을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억1천만불 규모의 베트남 식품가공·포장설비시장이 향후 3년간 30%의 고성장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식품가공 포장설비 수입시장에서는 저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산이 42%로 수위를 점하고 있다.

최근 원화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를 무기로 우리 업계가 수출마케팅을 강화할 경우 중국산에 비해 품질이 우수한 우리제품의 베트남 시장 확대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파라과이, 스페인어 라벨 의무화 논란 원산지 구분없이 수입품에도 적용

이달 1일로 예정된 의류, 신발, 맥주의 3개 품목에 대한 스페인어 라벨 부착의무 시행을 둘러싸고 파라과이 정부와 수입업체간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지난해 10월1일과 12월1일 자 시행령을 통해 의류, 신발류 및 맥주의 3개품목에 대해 스페인어 라벨 부착을 의무화시키고 맥주의 경우 지난 2월 1일부터 의류 및 신발류의 경우 4월1일부터 시행예정임을 공표했다.

이 시행령에 의하면 의류 및 신발류의 경우 국내 생산품이든 수입품이든 관계없이 제품의 원산지, 생산자명,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명 또는 납세자 등록증 번호, 원자재성분, 의류의 경우 유지보수 방법등이 스페인어로 표시된 라벨을 원산지에서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총 판매금액의 5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재차 위반시 압수된다.

한편 맥주의 경우 더욱 엄격해서 상품명, 첨가물 목록, 원산지, 생산자, 수입자명, 유효기간, 파라과이 보건복지부 생산허가 번호, 알콜농도 등이 스페인어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파라과이 정부는 국내 소비자 보호, 밀수 및 탈세의 근절 등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저가의 중국산 의류 및 신발류와의 경쟁에서 국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조치 시행시 원산지에서 라벨을 제조, 부착할 수 있는 소수의 대규모 수입업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중소 수입상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예상이며 또한 이번 조치가 여타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입업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주요 수입업체 260개사로 구성된 수입상연합회는 이 조치로 파라과이 조세수입의 55%를 납부하고 있는 중소 수입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연합회는 포장 식품류에 대한 MERCOUR 규정을 원용, 규정된 라벨을 원산지가 아닌 수입국, 즉 파라과이에서도 부착, 판매 가능토록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중국, 합성수지 부족상태 지속 수요 55% 수입의존

최근 몇년간 중국의 합성수지 시장은 방직, 자동차, 전자, 포장 등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수요가 급신장하고 있다.

그 중 5대 합성수지(PE, PP, PS, ABS 및 PVC)는 연간 수요량이 91년의 628만 톤에서 97년의 약 1,280만 톤에 달해 연평균 12.8%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의 합성수지산업은 관련설비 및 기술낙후, 가동을 저하, 품질 미흡 등 원인으로 공급이 수요를 크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상기 5대 합성수지의 97년 생산능력은 570만 톤으로 시장 수요량의 약 44.5%밖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은 매년 합성수지 총 수요량의 약 55%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며, 전체 합성수지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고급 합성수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해관통계에 따르면 97년 합성수지 총 수입량은 710만 톤에 달했다.

2000년에는 총 수요량은 천 5백만톤, 국내 생산량은 약 1천만톤에 달해 5백만톤을 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합성수지 수입량은 세계 합성수지 총 무역량의 25~30%를 차지하며, 전체 수입량의 약 70%는 비정상루트를 통해 수입된다. 96년 일



반무역방식으로 수입한 합성수지는 전체 수입량의 약 12.2%, 97년에는 약 13.7%를 차지했다.

중국 합성수지산업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품종 및 규격이 단일하고, 가동률이 낮다.

PE 및 PP의 경우 중국이 현재 생산이 가능한 품종 및 규격이 약 1,300종이나, 이는 PP 9,169종, LDPE 2,540종, HDPE 791종 규격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보다 크게 뒤떨어진다. 그리고 1,300종의 규격도 370종만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규격은 110종 밖에 안된다.

LLDPE도 400여종 규격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 11종만 정상적으로 생산한다.

전문용 수지 및 고급수지는 부족하고, 일반수지는 상대적으로 많다.

5대 합성수지의 경우 전문용 수지는 총 생산량의 13%를 차지하며, 나머지 87%는 모두 일반수지이다.

그리고 전문용 BOPP의 연간 수요량은 약 30만톤에 달하나, 국내 생산량은 겨우 5만톤에 불과하다.

전력케이블용 수지의 연간 생산량은 1.3만톤

밖에 안되며, 66KV 및 110KV의 고압전력케이블용 수지는 생산이 전무한 실정이다.

포장용 필름수지, 자동차, 전자 및 가전제품 등 분야에 수요되는 고급 합성수지는 아직도 생산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산 합성수지의 생산원가가 높은 주요 원인은 관련설비건설에 대한 투자비용이 높았고, 원료 수입 및 가공비용이 높은데 기인한다.

### 미국사, 나일론 저장용 백 수입 원해 년 5만개 규모

미국 Armatron Inc.가 나일론 재질의 저장용 백 제조업체를 물색하고 있다. 규격은 52"×17" 사각형이며 트럭으로 물건을 이동시킬 때 저장용 칸막이로 사용된다.

상세 사양과 프린트 등은 관심업체에 직접 송부 예정인데, 품질은 반드시 고급품이어야 한다. 수입규모는 5만개 정도이다.

#### ■ 연락처

Armatron Int'l Inc.

2 Main Street Melrose MA 02176 USA

Tel : 781-321-2300

Fax : 781-321-2309

### ▲ 5대 합성수지 수입현황

구분	1993	1994	1995	1996
PE	104	145	183	219
PP	58	85	107	113
PS	131	178	107	129
ABS	50	76	80	99
PVC	44	51	58	86
합계	387	534	535	646

(자료: 중국해관통계 각 년호)

### 스틱 사출성형기 수입희망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월 50톤 구매 희망

페루 Sumac Plast사는 Clumping Force가 100~1천톤인 2대의 중고 또는 신형유압식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 또



한 이외에 매월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을 약 50톤씩 구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연락처

Sumac Plast S.R.L  
Calle Pacto Andino No>275, Urb.  
La Villa, Lima 9, Peru  
TEL : (51-1)467-5484  
FAX : (51-1)251-2248

**미국,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레진 구매 희망**  
CD케이스 용도, 50만불 규모 원해

미국 Arica Int'l사가 50만달러 규모의 한국산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레진 제품수입을 희망하고 있다.

이 제품은 주로 CD(Compact Disc)나 유아용 우유병 제조에 쓰인다.

■ 연락처

Arica Int'l  
3110 Mont Sugar Land TX 77479 USA  
TEL : (281)240-9171  
FAX : (281)240-9182

**인도업체, 폴리에스테르 구매 희망**  
20ft 1컨테이너 분량

인도네시아의 Polyester Yarn 제조업체인 PT. Hapete사가 정기주문마다 폴리에스테르(High Tenacity,

1000Denier)를 20ft 1컨테이너씩 수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연락처

PT. Hapete  
Jl. Margomulyo Indah No. 18 A  
Surabaya, Indonesia  
TEL : 62-31-749-1826  
FAX : 62-31-749-1825, 748-0272

**독일사, 쇼핑백 30만개 구매원해**  
도자기접시, 유리제품 등도

독일 Gesalife사가 우리나라로 부터 쇼핑백 등 여러가지 제품 구입을 희망하고 있다.

이 회사가 구입하고자 품목, 구입희망수량 및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제지쇼핑백 : 15만개, 4종류 색상인쇄, 28×8×23cm

- 플라스틱쇼핑백 : 15만개, 4종류 색상인쇄, 23×28cm

- 유리제품 : 5톤

- 도자기 접시 및 컵 : 10톤

■ 연락처

Gesalife GmbH Hauptstrasse 13 D-10317  
mBerlin

Tel : 49-30-55762 622

Fax : 49-30-55762 623

**월간포장계**

**광고문의**

**02-835-9041~5**